

“방사능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하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화

무주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무주군의회가 일본이 계획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주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을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영희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세계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구책과 안전장치 없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추진했다. 이미 오염수 태평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돼 시운전을 시작해 이대로라면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희 의원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정보를 은폐한 채 다핵종제거기술로 처리해도 인체피해를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고 오염물질 기준치도 초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말하는 대로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인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오염수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놀음을 해서라도 바닷물에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원전 설계자와 정치인조차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는 오염수 방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을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영희 의원은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다른 국가에도 피해를 끼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키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먹거리가 말살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재차 경고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전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

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설에 대한 세계정부 조사단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받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철회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한일본대사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실천면에 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개소

무주군이 농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유지했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2일 실천면 생태숲 연구동에 마련한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문을 열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박희숙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이사·감사진, 이장단,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예비 액션그룹(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육성·지원을 하는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관식과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관내 산림 자원에 ‘치유’를 접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며 “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지닌 역량을 십분 발휘해 또 하나의 ‘무주다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산림치유 관광 플랫폼 구축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산림치유 관광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단장 박희숙)은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그동안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전문위 개최를 비롯한 사업 설명회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 무주군과 발걸음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1차 정례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 대표 30여명과 기업 하기 좋은 진안 만들기 위한 열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기업 운영과 관련한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군은 그동안 농공단지협의회 임원진 중심의 간담회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전체 기업대표로 상·하반기 정례간담회를 추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대화 창구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전으로 농공단지 폐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다목적복합센터 차후 운영 방향,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등 활발하게 개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2일 부귀면 하천 일원에서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시작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0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진안소방서 협조를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등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수칙,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인명구조 실습 훈련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구조장비 사용방법 등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6일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가막천, 섬바위, 감동천, 풍혈냉천, 정자천1·2·3·4구역, 운일암 반일암 6개 구역) 14개소에 배치돼 순찰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외에도 주말에 담당 공무원 휴일 비상 근무제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5일~8월 13일까지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 컨설팅 ‘호응’

무주군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보유중인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교정 컨설팅’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검·교정 관리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직원들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올바른 검·교정과 사업장 관리방법 등을 지도한다.

또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식품안전관리인증 보유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관내 22개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미 실시한 5개

업체를 대상)의 ‘디지털온도계와 분동(대저울 등으로 무게를 달 때 무게의 표준이 되는 추)에 대한 공인 성적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취득해 관내 해당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부터는 더 확대할 예정으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동’과 ‘온도계’를 비교 검증하고, ‘살균기’와 ‘농축기’, ‘가열기’ 및 ‘저울’ 등을 활용한 자체 검·교정 지원,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인증심사 및 사후심사 점검 포인트인 계측정비 검·교정에 대한 심사규정 등도 공유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수박축제’ 7월 29~30일 개최

매년 여름 시원한 수박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오는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안군 동향면 체련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진안고원 수박은 평균 해발이 약 400m인 고랭지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로 인해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매년 높은 비중으로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 꾸준히 납품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수박 출하시기에 맞춰 매년 7월 말 동향면에서 개최되며 풍성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기다린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첫날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수박왕 선발대회 △감짜 수박경매 △수박공예 전시 △수박 판매 등 다양한 수박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50여개 부스의 체험·판매·전

시부스 및 △초대 가수 공연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들로 시원한 여름축제를 장식할 예정이다.

초대가수로는 ‘미스트롯2’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받은 김태연과 성민지의 열정의 무대로 축제장의 여름밤을 더욱 시원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놀이장, 민속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열을 수박화채 무료시식 코너도 만들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울림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영농상담을 한다.

중점지도의 날은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농업

시설물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개 읍·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요령을 현장지도한다.

또한, 논은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에 예방적 방

제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작물의 경우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하고, 강풍·강우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농업시설물은 비바람에 의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보수하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